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사례로 -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es Using Open Source Software to Document Mi-ryang Transmission Towers Construction Conflicts

설 문 원 (Moon-Won Seol)**

최 이 랑 (Yi-Lang Choi)***

김 슬 기 (Seul-Gi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디지털아카이브의 설계와 데이터 구축 |
| 2. 사례 분석 | 5. 맺음말 |
| 3.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 아카이브의
계획과 기초조사 | |

<초 록>

이 연구는 오픈소스 Omeka를 이용하여 환경 갈등사건의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로는 장기간 지속되었고 아직도 진행형인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사건을 설정하였다. 먼저 국내외에서 오페카를 활용하여 구축된 아카이브 사례를 조사하였고, 밀양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정한 후 기록화 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맥락 분석과 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실제로 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기록을 수집·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재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아카이브 컬렉션의 구조와 전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록물 목록을 실험적으로 작성한 후 이러한 목록데이터와 디지털화한 기록을 중심으로 Omeka를 이용한 디지털 컬렉션과 전시를 구현하였다.

주제어: 환경갈등, 밀양 송전탑, 디지털 아카이브, Omeka, 오픈소스, 로컬리티 기록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mplement the digital archives to document environmental conflicts using open source Omeka.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struction Conflict is the selected case because it is very crucial and continues until today for more than 10 years. It begins with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archives developed using Omeka. Based on these analysis, it draws the directions of developing Mi-ryang archives. It also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Mi-ryang conflicts as the contexts of records creation, acquire the actual records from a Mi-ryang civic group, and finally implement the collections and exhibits of Omeka-based archival system.

Keywords: environmental conflict, Power Transmission Towers, Mi-ryang, digital archives, Omeka, open source software, documenting localities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223).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eol@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과정(yilang1003@naver.com)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과정(cino.yuel07@gmail.com) (공동저자)

■ 접수일: 2014년 10월 23일 ■ 최초심사일: 2014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19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7-36,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4.00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록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 관점에서 되짚어보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적 기록관리기관이 아닌 단체나 일반인이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활동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한 현상들로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기록관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전문가가 아니라도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쉽고 경제적으로 소규모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기록을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로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설정하였는데, 동시대 사건의 경우 디지털 기록 등 휘발성이 강한 기록이 많고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기록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의 경우 시급히 기록의 소재를 파악하고 획득하여야 할 것이며 사건 기록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는 최근 기록 컬렉션 구축 및 웹 전시에 많이 사용되는 Omeka를 채택하였다. 구축 대상 사건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사건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은 1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로컬리티 기록화 측면에서 볼 때 입지갈등이나 환경갈등은 “지역주민들의 장소 경험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핵심

사건”이며, 따라서 갈등사건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기록을 통해 재현하고,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화하는 것은 로컬리티 기록화의 핵심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설문원, 2014, p. 323).

1.2 연구방법과 범위

첫째,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사건 콘텐츠와 사건 아카이브에 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가기록원의 사례를 통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컬렉션을 모으고 전시하는 구조를 조사·분석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Omeka를 이용한 사건아카이브와 지역아카이브 사례를 함께 조사하였다.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의 경우, 지역민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아카이브와 지역 아카이브의 측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 조사를 통해 Omeka를 이용한 밀양 갈등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기록화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현하였다. Omeka는 2008년 2월 출시된 오픈소스로서 웹 콘텐츠 관리, 컬렉션 관리, 디지털 기록 보존 시스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Omeka를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기록화작업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서 경제성과 사용 용이성이 매우 중요하다. Omeka의 장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많은 연구들(최운진, 최동운, 김형희, 임진희, 2014;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 2014;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설치가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적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최훈진, 2014, p. 178). 또한 AtoM 등의 기록기술용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이고, 아카이브의 핵심 컬렉션을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쉽게 만들어 서비스 할 수 있다.

셋째, 아카이브 구축은 기록화 전략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에 대한 맥락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 개요, 이해관계자, 관련 법규를 조사하고 핵심 사건을 분석하여 전시 주제 설정 및 맥락 기술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후 기록의 핵심 출처를 대상으로 밀양 갈등과정에 생산된 기록을 조사·수집하였으며, 기록물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후 컬렉션의 구성 기준을 결정하고, 목록 기술의 원칙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밀양 사건 기록 컬렉션 및 전시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1.3 선행 연구

오픈소스인 Omeka는 기록컬렉션 구축이나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우선 살펴보고, 아울러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 기록화와 관련된 연구도 분석하였다. 밀양 송전탑 건설갈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행정학, 사회학, 언론학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장서관리와 보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사례로는 이종덕, 신규용, 유진철(2013)과 Kucsma,

Reiss, & Sidman(2010)의 연구가 있다. Kucsma, Reiss, & Sidman(2010)은 Omeka를 이용하여 뉴욕도서관위원회가 디지털 장서를 위한 디렉토리를 개발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2008년 9월 Metropolitan New York Library Council (METRO)이 ‘오픈소스 장서관리 시스템’인 Omeka를 이용하여 디렉토리를 실험적으로 구축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웹에서 디지털 컬렉션을 생산,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Omeka의 장단점을 밝히고 있다. 우선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서 중소 규모의 디지털 컬렉션 구축과 온라인 전시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구축 및 운영의 용이성과 다양한 전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세 메타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생성하기 어렵고, 검색 인터페이스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 역시 Omeka 초기 버전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종덕, 신규용, 유진철(2013)은 교수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리포지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서, 리포지토리 소프트웨어인 DSpace, EPrints, Fedora, Omeka 1.3.2를 이용하여 리포지토리를 실험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Omeka를 교수자료 및 기록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용한 것이다. 분석 결과 Omeka는 사용이 쉽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의 생산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Omeka는 관리 용이성과 인터페이스 수정 가능성 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체스트, 검색기능(식별자 자동부여 기능 부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접근제어에서도 문제

가 지적되었는데 “계정 레벨(슈퍼 이용자, 관리자, 기여자, 연구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게시된 디지털 객체에 대해서는 웹 페이지에 접근한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었다. 즉, 보존 및 접근제어 상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1.3.2라는 초기 버전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Omeka가 리포지토리와 같이 장기보존을 고려한 아카이브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전시 영역에서는 Hardesty(2014), 최윤진 외(2014)의 연구가 있다. Hardesty(2014)는 인디애나 대학 도서관이 디지털 컬렉션의 전시를 위하여 Omeka를 사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술관·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gallerie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GLAM)에서의 온라인 전시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컬렉션을 전시할 수 있고, 낮은 수준의 기술로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산된 디지털 컬렉션의 복합적 전시 관리에는 아직 성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윤진 외(2014)는 Omeka의 특징 및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서울시 이미지 기록을 사례로 전시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로컬리티 기록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컬렉션 구축과 전시에서의 활용을 다룬 연구로는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2014),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2014)의 연구가 있다.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2014)은 Omeka를 이용하여 부산항과 인근지역의 경관에 관한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사진 및 엽서 기록 컬렉션을 시기별(개항기, 일제강점기, 8·15광복과 한국전쟁, 산업발전기, 신항만 시대와 오늘날)로 구분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전시는 4개의 범주를 나눈 후 각 범주별로 11개의 전시주제를 설정한 후, 부관련락을 전시 사례로 구현하고 있다.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2014)은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Omeka의 이용자 참여 기능을 중점적으로 실험한 연구이다. 부산 영도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造船) 산업 및 노동 기록을 수집하여 컬렉션과 전시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컬렉션은 소장처와 출처를 중심으로 구성된 후 컬렉션 트리를 활용하여 하위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렇게 축적된 기록 및 기술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사건, 인물, 사업장별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동 및 산업 활동 경험을 공유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Omeka의 추가 기능 중 참여 지원 기능을 추가 설치하고 그 기능을 실험하였다.

교육 영역에서 Marsh(2013)는 ‘자료 문화 세미나(material culture seminar)’ 수업과목에서 Omeka를 사용하여 디지털 큐레이션과 온라인 전시 개발을 하도록 지도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3년간 학생들이 개발한 전시물을 소개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인문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Omeka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건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연구로는 오명진(2012)과 설문원(2014)의 연구가 있다. 오명진(2012)은 2004년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대상으로 공공영역 활동에 대한 기록화를 평가하였다. 탄핵제도 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

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권한 대행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활동 과정의 기록을 얼마나 충실히 생산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공영역 기록조사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관련 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통해 있어야 할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은 거버넌스 기록화 관점에서 볼 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문원(2014)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환경갈등 기록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갈등사건 기록화를 위한 동적 내러티브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은 ISO 23081의 메타데이터 영역을 응용한 동적 기술 체계와 프레임의 적용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모형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에 적용하여, 기록생산 맥락에 대한 기술(사건, 법규, 이해관계자)과 기록 기술을 연계하고 각 사건 기술에 사건을 둘러싼 대립되는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중층적 내러티브 형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오픈소스 활용을 고려한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Omeka를 활용하려면 상당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밀양 갈등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맥락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국에서는 Omeka가 도서관, 박물관의 소규모 컬렉션 구축과 전시, 역사 및 인문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성에 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오픈소스를 활용한 기록컬렉션 구축 및 전시에 대한 노력이 이제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 사례 분석

2.1 국내 사례

국내 사례로는 Omeka 활용사례와 사건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함께 조사하였다. Omeka 활용사례에서는 기술적 시사점을, 사건 아카이브 사례에서는 내용 구성과 구조상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현재 Omeka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사례로는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가 거의 유일하다.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는 편지·일기 등 ‘보통 사람들’이 생산한 일상 기록을 위한 AtoM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으나 수집한 기록의 전시를 위해 Omeka를 활용하고 있다(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 2014). 2013년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를 통해 유치원생, 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시민 581명으로부터 기증받은 일기로 컬렉션을 구축한 후, 핵심 테마 별로 전시콘텐츠를 구성하여 전시하고 있다(송정숙, 허정숙, 이예린, 2014, p. 138). 단순한 전시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용자 참여 기능과 다양한 검색 기능 등을 보강하여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 콘텐츠 중 사건을 중심으로 구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에는 김창룡 저격 사건(1956년), 진보당 사건(1958-1959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필화사건(1948-1970)이 포함된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온라인콘텐츠가 “기록은 거의 없는데 해설은 과잉”이라는 특징을 갖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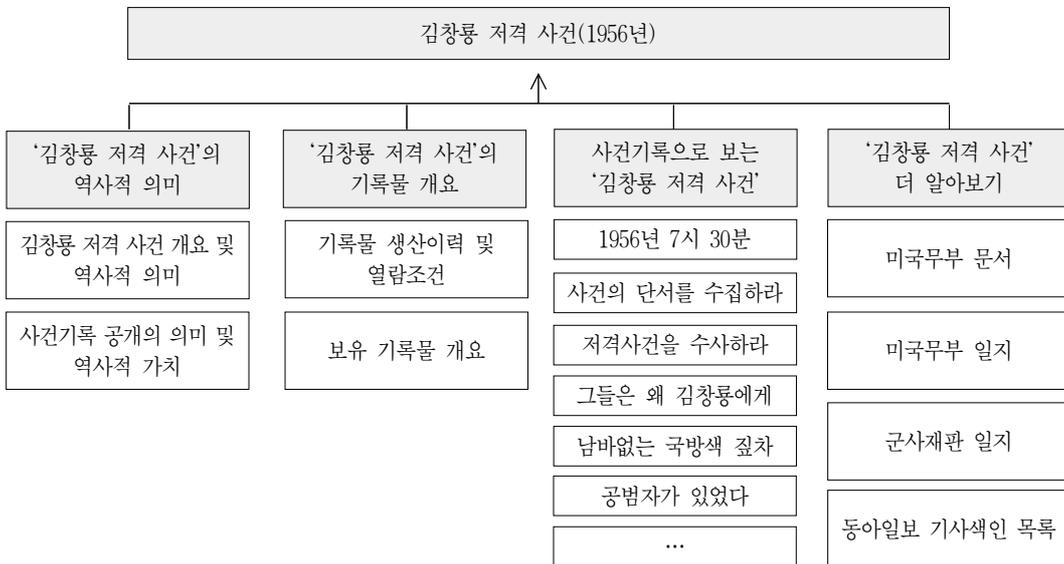
다.1) 이에 비해 이 시리즈는 기록물의 비중이 높고 기록된 증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대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김창룡 저격 사건’ 콘텐츠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네 개의 메뉴로 구성된다(국가기록원 웹사이트, 2014a). 맥락분석(‘김창룡 저격 사건’의 역사적 의미), 소장 기록 분석(‘김창룡 저격 사건’의 기록물 개요), 기록을 활용한 사건 기록 화/재구성(사건기록으로 보는 ‘김창룡 저격 사건’), 외부 소장 기록 조사 제공(‘김창룡 저격 사건’ 더 알아보기)과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 “사건기록으로 보는 김창룡 저격 사건”에서는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해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의 경우 원문을 이미지로 볼 수 있으나, 기록에 대한 정보나 기술은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김창룡 저격 사건’ 더 알아보기’ 메뉴에서는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관련 기록물 개요서와 목록, 국내에 있는 민사재판 일지 목록, 군사재판 일지 목록, 동아일보 기사 색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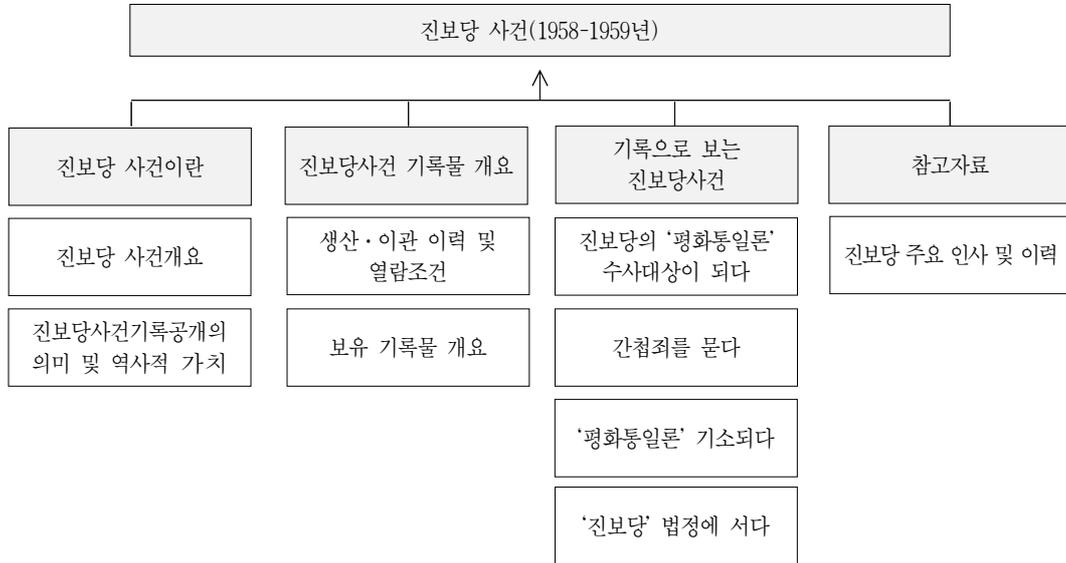
진보당 사건(1958-1959년)에 대한 기록 콘텐츠는 <그림 2>와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에 대한 사건 콘텐츠도 위의 두 사례와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국가기록원 웹사이트, 2014b, 2014c).

국가기록원의 사건 중심의 콘텐츠의 특징을



<그림 1> 김창룡 저격사건 콘텐츠의 구성

1) 가령 국가기록원의 “다시 보는 2002 FIFA 월드컵” 콘텐츠에는 기록은 거의 없고 행사의 진행과정 등에 대한 해설이 대부분이며, 이밖에 국가기록원의 많은 온라인 주제콘텐츠들이 기록 중심이라기보다 해설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2〉 진보당 사건 콘텐츠의 구성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맥락분석, 기록조사, 사건 재구성, 추가 기록 제공 등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사건의 배경, 사건의 흐름, 사건의 의의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내러티브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사건과 관련된 국가 기록원 소장 기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신문기사나 외부 소장 기록, 참고자료 등도 제공하고 있어서 상당히 충실한 사건 기록화를 성취하고 있다. 넷째, 기록물이 해설 속에 배치되어 일종의 온라인 전시 콘텐츠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기술(목록)과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고려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사건 중심의 아카이브나 콘텐츠 구축 시 사건의 흐름에 따른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둘째, 국가기록원 사례와 같이 완결적이면서 폐쇄적인 콘텐츠 구조를 개발할 경우,

만드시 전문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시기록의 갱신과 교체, 수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개방적이고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전시기록과 기록컬렉션 및 건 기술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진다. 첫 번째 시사점은 Omeka를 이용한 전시 주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며, 둘째와 셋째의 경우 Omeka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2.2 외국 사례

먼저 오픈소스 Omeka를 활용하여 특정 사건 중심의 기록컬렉션 구축과 전시 구현 사례를 조사하였다. Omeka를 이용하여 구축된 사건 아카이브 사례로는 청소 노동자 파업사건을 다룬 'I AM A MAN',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오하이오 주의 남북전쟁 기록을 다룬 ‘Ohio Civil War 150’ 등이 있다.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카트리나와 리타)을 겪은 지역민들의 기억을 모은 허리케인 디지털 기억은행(Hurricane Digital Memory Bank)도 Omeka를 이용한 사건 아카이브 사례로 볼 수 있다. 엄청난 자연 재해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서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이 사례는 최윤진 외(2014, pp. 154-156)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갈등을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아카이브 측면도 살펴봐야 하지만, 밀양 지역민의 삶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Cleveland Historical, Florida Memory와 같이 Omeka를 이용하여 구축한 지역 아카이브 사례도 조사하였다.

2.2.1 청소노동자 파업사건 아카이브:

I Am A Man

‘I Am A Man’은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일어난 청소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건 아카이브로서 웨인 주립대학의 Walter P. Reuther Library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대부분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약 1,300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 생활이 가능한 임금, 남성 및 여성노동자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 조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으며,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이 파업 지지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이곳에서 암살되었다. 이 사이트는 파업 사건의 전말과 함께 그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Omeka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의 디지털 전시 사이트로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한 개요서(Introductory Essay)를 포함하여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그리고 사건이 미친 영향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구분하고, 각 국면별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시기별 전시 콘텐츠에는 해당 시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동영상 및 기록을 썸네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록건별로 원문과 함께 한줄 내외로 기술(description), 생산자(creator), 출처(citation), 라이선스(license) 정도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기별 컬렉션과 별도로 자원(Resource) 메뉴에서는 관련 정보원들의 출처를 별도의 페이지로 보여주면서 해당 정보로 링크시켜주고 있고,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Credit/Contact)을 마련하여 이용자와 소통이 가능한 페이지를 구현하고 있다.

2.2.2 월가점령운동 아카이브

‘월가점령운동(Occupy Wall Street Movement)’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극심한 빈부격차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항의로 2011년 9월 17일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시위를 말한다(이현정, 2014). 이 운동은 금융자본의 부패와 경제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문헌정보학과 기록학 전공자가 결성한 ‘아카이브 워킹그룹’에서는 2011년 10월 월가점령 아카이브 사명문을 발표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오픈소스 아카이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하

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Omeka를 이용한 아카이브가 구축되었다(이현정, 2014, p. 228).

이야기(Stories)라는 메뉴에 6개의 카테고리(Analysis, Event, Feature, GA Statement, News, Opinion)로 구분하여 기록을 조직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가 생산한 기록은 Analysis, Opinion, News로 구분하고, GA Statement와 같이 생산주체별로 구분하기도 한다. GA Statement는 뉴욕 주 의회에서 생산한 기록이다. 각 컬렉션 기록에 대해 썸네일 형식으로 이미지와 제목을 보여주고, 기록을 선택하면 원문 이미지를 제공한다. 기록이 카테고리 별로 분류되어 있지만 중앙 화면에는 최근 올린 자료 순으로 나열된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기록을 브라우징할 수도 있고,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다.

2.2.3 911 아카이브

911디지털 아카이브(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버지니아, 펜실바니아에서의 참사 기록을 수집·보존·제공하기 위한 사이트이다. 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대학원센터와 George Mason University의 Roy Rosenzweig Center for History and New Media(RRCHNM)가 American Social History Project를 추진하면서 일차 구축하였다.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 이메일, 기타 전자 통신문, 디지털 사진, 예술작품, 참사 관련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수집함으로써 911의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려는 작업에 역사가와 아키비스트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만 건 이상의 이메일과 기타 전자통신문, 4만 건 이상의 목격자 진술,

1만 5천 건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하여 15만 건 이상의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²⁾

2003년 9월에는 911 사건을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미국의회도서관과 협정을 맺어 사본 전체를 이관하였다. 2011년에는 National Park Service와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로부터 장기보존을 위한 기금을 지원받았고, RRCHNM은 아카이브를 Omeka 소프트웨어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 보다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웹 사이트를 다시 런칭하였다.

주요 기능은 브라우징(Browse), 검색(Research), 이용자 참여(Contribute)로 구성된다.

- 브라우징: 911 관련 스토리, 이미지, 이메일, 문서, 소리기록, 비디오 컬렉션 별 브라우징
- 검색: 전체 컬렉션 및 기록 건에 대한 탐색, 정렬, 조사
- 참여: 자신의 이야기 말하기, 이메일 추가하기, 이미지나 문서, 기타 디지털 파일을 아카이브에 올리기

911 아카이브에는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내러티브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FAQs를 통해 911과 관련된 질문들과 그에 따른 해답을 링크로 연결해주고 있으며 주로 미국 의회도서관이나 다른 아카이브 및 뉴욕타임스, CNN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일반인들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기록을 유형별로 나누고 다시 세부 분류로 나누어서 브라우징을 지원하고 있다.

2) <<http://911digitalarchive.org/about>>. [2014. 10. 15 인용].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카테고리 내 기록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썸네일의 형식으로 기록을 보여준다. 텍스트 자료의 경우에는 텍스트의 일부를 보여주고, 이미지 자료나 pdf파일도 제공하고 있다. Repository 메뉴에서는 소장 기록 목록을 제공하고 있고, Special Collection에서는 911사건을 다루고 있는 아카이브 중 대표적인 4곳을 소개하며 링크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9/11 Links는 911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아카이브 및 웹사이트로 안내해주고 있는데, 각 링크는 웹사이트 개발주체 유형별(By Type), 웹사이트가 담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 콘텐츠별(By Content)로 조직되어 있다.

이 아카이브를 통해 21세기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역사가들이 당대의 사료를 수집 보존하고 역사를 쓰는 데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방법이 유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³⁾

2.2.4 오하이오 남북전쟁 아카이브:

Ohio Civil War 150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난 지 15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아카이브는 역사적 사건 아카이브이다. Ohio Civil War 150은 새로운 세대에게 남북전쟁에서 오하이오 사람들이 한 역할과 전쟁이 바꿔놓은 그들의 삶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아카이브는 Ohio Historical Society, CSU Center for Public History + Digital Humanities, Ohio Humanities Council이 구축하

였고, Ohio 주립 기록관과 연계되어 있다.

Ohio Civil War 150의 경우에는 메인 메뉴가 'News', 'Collections & Exhibits', 'Calendar', 'Resources', 'Suppo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Collections & Exhibits'으로서 총 10개의 컬렉션과 8개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 Collections(10): 드라마와 공연, 랜드마크와 기념물, 연대 깃발, 편지와 통신문, 사진, 그림과 예술품 및 인쇄물, 신문 풍자만화, 노래와 시, 박물관
- Exhibits (8): 전쟁의 색깔: 오하이오 남북전쟁의 깃발색깔, 오하이오 자원병: 최초의 13인, 내부의 적: Golden Circle의 Knights와 Copperheads, 전선의 여인들, 분열된 하원: 오하이오 정치는 남북전쟁을 어떻게 만들었나?, 자유를 위한 비행: 남북전쟁에서의 아프리카계미국인, 남북전쟁에서 아일랜드인, 링컨의 공군

기록건, 컬렉션, 전시 별로 브라우징할 수 있고,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자 참여기능(Contribute)도 제공하고 있고, 캘린더, 자료모음(Resources) 등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2.2.5 Cleveland Historical

Cleveland Historical은 클리블랜드 도시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아카이브이다.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의 대중역사학 및 디지털인문학 센터(Center for Public History and Digital Humanities)에서 개발하였으며, 도시의

3) <<http://911digitalarchive.org/about>>. [2014. 10. 15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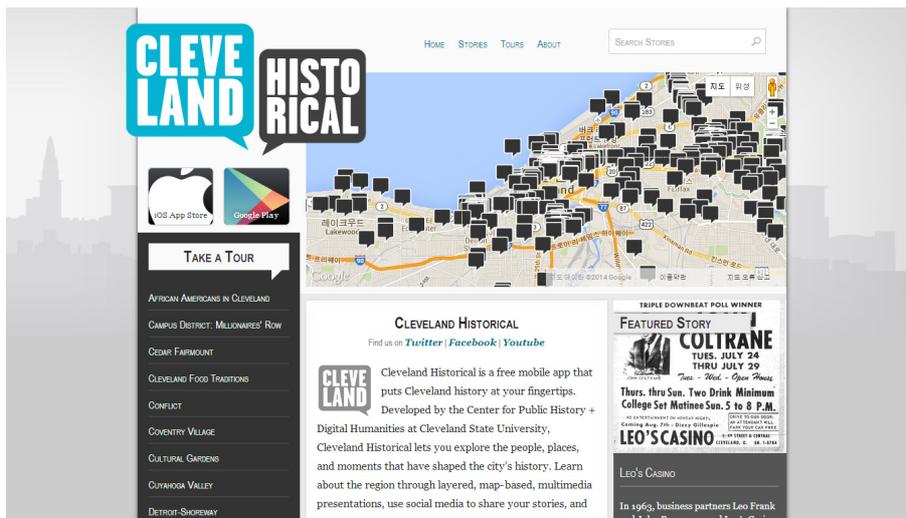
역사를 구성하는 인물, 장소,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Omeka와 연결된 모바일 앱(CurateScape)으로 출시하여 더욱 이용자 친화적으로 변신하고 있다. CurateScape를 이용하여 Cleveland Historical을 모바일 환경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역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 리치몬드대의 대학원에서는 역사뿐 아니라 협력형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능력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Middleton & York, 2014).

Cleveland Historical의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정보와 연계하여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3〉 참조). 각 콘텐츠는 구글맵과 연동되어 기록이 생산된 장소, 혹은 관련 있는 장소가 연결된다. 지도 상의 어떤 장소를 선택하여도 그 장소의 기록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두 번째는 489개의 Story로 구성된 Collection과 29개

의 Tour로 구성된 Exhibition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쉬운 단어로 기록을 조직하는 등 이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고 있다. 컬렉션은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전시는 이민사, 학교사, 스포츠, 갈등, 환경주의, 클리블랜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장소와의 관계성을 밝히고 있다.

2.2.6 Florida Memory

Florida Memory는 Omeka를 사용한 대표적인 아카이브 중 하나이다. Florida Memory는 플로리다 주립 도서관·기록관(The State Library and Archives of Florida)의 자료 중에서 선별한 컬렉션으로 플로리다 주 정부의 기록을 위한 중앙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기록, 지방 정부의 기록, 사진 및 기타 자료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주의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



〈그림 3〉 Cleveland Historical 메인 페이지

다. Florida Memory는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사람을 조명하고, 플로리다 사람과 플로리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lorida Memory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컬렉션, 전시, 교실이라는 여섯 가지 구성 요소로 구축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컬렉션이며 Omeka의 컬렉션 트리를 활용하여 컬렉션을 계층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표 1〉 참조).

〈표 1〉 Florida Memory 컬렉션의 계층

컬렉션	하위 컬렉션
예술과 문화	Florida Folklife Collection
	De Bry Engravings
	Florida BroadSides
	WPA Stories
정부 기록	Florida's Early Constitutions
	Supreme Court Records
	1825 Leon County Census
	Spanish Land Grants
	1845 Election Returns
	Jefferson County Freedmen's Contracts
	Confederate Pension Applications
	Old Confederate Soldiers and Sailors Home
	World War I Service Cards
WPA Church Records	
일기 및 개인기록	Kingsley Papers
	Richard Keith Call Papers
	Call and Brevard Family Papers
	Physician's Journal
	Jesup Diary
	Milton Letterbook
	McLeod Diary
Albert S. Chalker Papers	

컬렉션은 플로리다 주립 도서관·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 선별되었으며 40만여 개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컬렉션은 다시 컬렉션, 가이드, 가계로 나누어지는데 가이드에서는 주립 도서관·기록관의 소장 자료를 설명하고 있고, 가계는 계보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모아 놓은 곳이다. 전시는 영상 자료를 포함하여 디지털화 되어 있는 역사적 자료를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중요 문서, 플로리다 지도(그때와 지금), 남북전쟁에서 플로리다의 역할, 링컨의 편지, 초기 플로리다의 의학, Koreshan Unity(종교 집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로리다 주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Timeline) 기능도 사용하고 있다.

2.2.7 종합 및 시사점

각 사이트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고, Omeka 기능 활용 현황은 〈표 3〉과 같다. Omeka 활용사례들은 밀양 사건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컬렉션의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 자료의 유형이나 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출처를 기준으로 하거나 주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출처를 구성하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911 아카이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전시 설계에는 핵심적인 하위사건을 뽑아서 시기 순으로 전시를 배치하는 방식, 혹은 중요 기록만을 전시물로 선정하는 방식, 특정 주제나 기록유형(군 깃발, 링컨의 편지 등)에 따라 전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되고 있었다.

〈표 2〉 Omeka를 활용한 아카이브의 비교

	I am A Man	Occupy Wall Street	911 Archive	Ohio Civil War 150	Cleveland Historical	Florida Memory
기록화 대상	사건	사건	사건	사건/지역	지역	지역
성격	전시	수집(정보공유)	수집	수집/전시	수집/전시	수집/전시/교육
주요기록 정보원	협회	언론자료, 공공기록(뉴욕 주의회), 개인	개인(증언), 언론자료, 인터넷	오하이오 주립기록관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기록관, 도서관 등	플로리다 주립 도서관·기록관
특징	• 사건 진행을 반영한 내러티브	• 정치적 성향이 강함	• 다양한 기록 수집에 중점 • 내러티브 방식의 사건 해설 부재	• 컬렉션 구축과 전시 중심 • 참여 기능	• 방대한 컬렉션 구축 • 모바일 앱과 연계	• 기록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

〈표 3〉 Omeka 기능 활용 현황

	I am A Man	Occupy Wall Street	Ohio Civil War	911 archive	Cleveland Historical	Florida Memory
Simple page	○	○	○	○	○	○
Exhibit Builder	○	○	○		○	○
Contribute	-	○	○	○	-	-
Advanced Search	-	○	○	-	-	-
Social Bookmarking	-	○	○	-	○	○
Search by Metadata	-	-	○	○	-	○
Geolocation	-	-	-	-	○	-
Comments	-	-	-	-	○	-
Timeline	-	-	-	-	-	○
Collection tree	-	-	-	○	-	○
Replace DC Title*	-	-	-	-	-	○
PDF Embed*	-	-	○	-	-	-
BeamMeUp to SoundCloud*	-	-	-	-	○	-
Simple Vocab*	-	-	-	-	-	○

* 사이트 개발 설명서가 없는 경우, 사이트에 공개된 부분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므로 별표(*) 기능의 활용여부는 명확하지 않음을 밝힘.

셋째, 기록을 검색하고 이용할 있도록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브라우징이었다. 컬렉션, 아이템, 전시 등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 아카이브 구축 방향, 컬렉션 및 전시 구조를 설계하였다.

3.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 아카이브의 계획과 기초조사

3.1 아카이브 구축방향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은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라는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이 과도하게 침

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정부 및 공기업이 대립한 복합적 성격의 갈등”이다(설문원, 2014). 이 갈등을 기록화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주민의 기록을 우선적 구축대상으로 한다.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정부 및 공기업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대립으로 야기된 사건이므로 갈등 기록화를 위해서는 양자의 기록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기관의 기록은 공공기록관리 차원에서 이미 관리되고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멸되거나 잊히게 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카이브는 부재하다. 따라서 주민 입장에서의 갈등 기록화를 추진하여 향후 공동체 아카이브나 지역 아카이브 구축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물론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록화를 추진한다. 밀양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와 가치 충돌 등이 내재된 복합적 갈등이기 때문에 기록화도 “객관적 증거와 경험적 기억의 추구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수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설문원, 2014).

셋째, 오픈소스 Omeka를 활용하여 구축한다. 전문가 없이도 구축과 운영이 가능하고, 컬렉션 구축과 전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전시와 컬렉션을 쉽게 추가하고 갱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갈등이 진행되었지만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지속적인 기록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직도 갈등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진행 중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연성은 밀양 사건 기

록화에 매우 핵심적 요건에 해당한다.

넷째,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한 아이টে에 대해 다방면의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Omeka는 기본적으로 컬렉션-아이টে의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v2.0의 collection tree를 이용하면 컬렉션 간의 계층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단순한 계층화에 그치므로 많은 전시나 컬렉션을 생성하여 하나의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한다.

다섯째, 기록의 생산 의도와 사건전개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술한다. “갈등에는 대립되는 복수 주체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록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대립구도 속에서 만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설문원, 2014). 따라서 기록을 기술할 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고려할 것이다.

여섯째, 기록은 유형이나 매체에 관계없이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다만 전시를 고려하여 가급적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를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하여 활용한다.

3.2 맥락 분석

3.2.1 사건의 전개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사건에 대한 맥락분석을 실시하였다. 맥락 분석에는 사건 개요, 이해관계자 및 관련 법규 분석 등이 포함되며, 분석 결과는 기록조사 및 수집을 위한 밀그림이 된다. 맥락 분석 결과로는 아카이브 메인 페이지에 들어갈 사건 개요, 전시 주제(안), 잠재적 기록 소장자 조사서 등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외부자’

로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관련 연구 논문과 각종 보고서를 분석하고, 밀양 주민과 대책위원회 활동가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갈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갈등의 양 대립주체별로 상세한 사건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수집해야 기록을 확인하는 데에 활용하고, 전시를 설계할 때에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각 시기별로 핵심사건을 선별하여 사건의 흐름에 따른 전시를 설계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밀양 갈등사건을 분석한 설문원(2014, p. 312)의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사건 목록을 활용하였다(〈표 4〉 참조).

그러나 이 아카이브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록만

〈표 4〉 밀양 송전탑 건설갈등의 시기 구분과 핵심사건

시 기	핵심사건
갈등 잠재기 (2000.1 ~ 2005.5)	- 송전선로 경로의 결정(2003) - 사업의 배경과 전력수급계획(2000 ~ 2003)
갈등 표출기 (2005.5 ~ 2007.11)	- 송전선로 경로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2005.5 ~ 6) - 최초의 주민반대 집회와 주민들의 분노 표출(2005 ~ 2006) - 공동대책위 출범과 조직적 반대운동(2006) - 밀양시의 입장과 밀양시의회의 건설반대 운동(2007)
갈등 증폭 및 교착기 (2007.11 ~ 2009.10)	- 전원개발 사업 승인 및 고시(2007) - 송전선로 건설공사 착공(2008.8) - 765kV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집회(2008.8 ~ 2009.2) - 전국 송변전로 건설반대 대책위 출범 반대 집회(2009.3) - 한전과 주민대책위 협상 결렬(2009.8) - 범밀양시민연대 발대식 및 총궐기대회(2009.9)
갈등 완화기 (2009.10 ~ 2011.4)	- 밀양지역갈등조정위원회 출범과 활동(2009.12 ~ 2010.6) - 갈등조정위원회의 합의사항(2010.11) - 한전, 밀양시장과 창녕군수 고소(2010.10) - 토지강제수용절차 착수(2010.10)
갈등 재증폭 및 교착기 (2011.4 ~ 2012.1)	- 공사 재개 및 물리적 충돌(2011.4.) - 밀양주민-한전 간 대화위원회 운영(2011.5 ~ 7) - 보상협의회 운영(2011.8 ~ 11) - 적정보상제도를 위한 연구용역(2011.9) - 태고종 약산사 주지스님 폭행 상해사건(2011.11) - 한전의 공사재개 반복(2011.4 ~ 2011.12)
갈등의 파국 및 사회적 확산기 (2012. 1 ~ 2014.10 현재)	- 밀양주민 이치우씨 분신 사망(2012.1) - 밀양송전선로 반대집회 및 탈핵 희망버스(2012.3) - 밀양 765kV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출범(2013.2) - 촛불집회(2012.2 ~ 2014.6) - 밀양주민 유한숙씨 음독 자살(2013.12) - 공사강행과 행정대집행 과정(2013.10 ~ 2014.6) - 행정대집행과정에서의 폭력과 인권(2013 ~ 2014) - 한전의 주민 설득과 공동체 붕괴(2012 ~ 2014) - 전문가협의체 구성과 보고서 채택(2013.5 ~ 7) - 송전선로 건설반대 운동의 전환과 및 탈핵운동(2012.1~) - 송주법 제정과 헌법소원(2014) - 송전탑 52기 설치 완료(2014.11)

을 모으는 것이 아니며, 밀양 갈등이 왜 그렇게 장기화되었는지, 왜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싸움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장소에 대한 애착과 가치를 알 수 있는 기록을 발굴하여 전시를 통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

3.2.2 이해관계자 및 관련 법규

갈등의 이해관계자와 법규를 분석하는 이유는 전시를 위한 내러티브 구성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조사는 갈등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수집에 필요한 잠재적 소장처를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다. 밀양 갈등과 관련하여 주요 이해관계집단은 다음과 같다.

- 주민 및 시민단체: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반대 밀양·창녕 공동대책위원회, 신고리-북경남 765kV 초고압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765kV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민원지연합,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 이치우 열사 대책위원회, 밀양 송전탑 반대 분신대책위원회, 밀양송전철탄 백지화 경남대책위원회,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 나눔문화,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

- 갈등조정을 위한 조직: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 보상제도 개선위원회, 전문가협의체,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 정부 및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밀양 송전탑 특별대책본부(한국전력), 밀양시, 밀양경찰서

이밖에 밀양 사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개인들(주민, 국회의원, 공직자, 다큐멘터리 및 사진작가 등)도 잠재적 소장처이자 갈등의 맥락 이해를 위한 조사 대상이다. 각 이해관계집단별로 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중 주민 측 기록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대책위원회, 나눔문화, 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사서를 예시하면 <표 5>, <표 6>, <표 7>과 같다.

밀양 송전탑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기록물을 생산, 수집한 주체는 2005년에 발족한 '신고리-북경남 765kV 초고압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이다. 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조직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765kV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대책위는 2005년 9월 경 여수마을에서 만들어진 '송전탑 건설 저지 여수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작하여 밀양의 5개 면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로 성장하였다. 대책위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조직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건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소규모 대책위를 결성,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해당 대책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송전탑 반대 투쟁을 이끌어오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총 네 개의 대책위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각각 만든 사람, 카테고리 구성,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설된 포털의 종류도 다를 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이름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책위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4기로 나

〈표 5〉 이해관계자 조사서: 대책위

명칭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시기	2005년 9월 - 현재
구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결성한 조직
구성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입장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 반대
내용	1기(2005~2008) 관련 기록물의 양이 극소수 2기(2008~2009) 밀양시민들의 송전탑 반대 투쟁을 고무하는 활동 3기(2009~2012) 성명서, 결의문 등을 통해 구체적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 4기(2012년~현재) 국민들에게 밀양사건의 부정의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기록물 내용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근거자료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자료가 주를 이룸
기록물 유형	보도자료와 사진기록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내부 행정문서, 성명서, 건의서, 탄원서, 행사 관련 박물류, 한전과 밀양시, 밀양경찰서 등으로부터 접수한 공문서 등

눌 수 있다(〈표 5〉 참조). 시기 구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문서는 없으나 대책위원회 카페 및 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의 면담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대책위 1기는 최초의 송전탑 반대 투쟁을 벌였던 ‘송전탑 건설 저지 여수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작하였으며, 당시의 기록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2기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구성되어 주민들을 격려, 고무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전체 대책위 기록물 중에서 이 시기의 기록물에서만 유일하게 ‘대책위 위원장’이라는 지위와 개인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책위 3기는 성명서, 결의문 발표 등의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 시기에 갈등조정위원회,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하였다. 4기는 2012년 마을주민 이치우 할아버지의 분신사건 이후에 해당한다. 대책위 1기에서 3기까지 남성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과 제도개선을 주목적으로 하였다면, 4기는 여성, 특히 할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폭력에 반대하고 탈핵을 요구하

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시민들과의 연대와 홍보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765kV 송전선로 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는 2009년 12월 11일 정식으로 출범하여 2010년 6월 25일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 위원회는 대책위 측에서 합리적 절충안 도출을 위해 경실련, 지식경제부, 한전, 밀양시, 국회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원회 활동 기록은 8차부터 14차를 제외한 때 회마다 회의 사진과 회의 결과가 정리되어 대책위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다. 7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로 송전선로와 가옥간의 이격거리 제한, 초전도 케이블의 상용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구성, 765kV사업의 타당성과 기존선로 보완 방법의 대안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 등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11월 16일에 명문화된 합의서에서는 한전의 거부로 전자계와 관련하여 송전선

로와 가옥간의 이격거리를 제한한다는 항목을 뺀 네 가지 항목만 담겨있어 핵심 안건은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눔문화

나눔문화는 2001년 9월 25일에 만들어진 비영리 사회운동단체이다. 나눔문화에서는 사회실천활동의 일환으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나눔문화가 밀양 사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치우 할아버지의 분신사건이며, 사건 이후인 2012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많은 글을 생산하고 있

다. '입장과 성명', '지금 현장에서는'이란 게시판에 관련 글을 공유하거나 나눔문화의 회원들의 밀양 현장 방문 보고 등이 올라오고 있다. 농성장의 모습과 주민의 삶의 모습들에 관한 양질의 현장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밀양 갈등 사건 및 기록을 이해하려면 관련 법제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갈등의 쟁점이 된 법률은 전원개발촉진법(電源開發促進法), 전기사업법, 송변전 주변시설 보상법 등인데 이들 법률의 관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갈등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6> 이해관계자 조사서: 갈등조정위원회

명칭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시기	2009년 12월 11일 정식 출범, 2010년 11월 16일 합의서 작성
구분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구성원	위원장, 부위원장, 주민대표(3), 한전(2),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밀양시, 조해진 국회의원
입장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과 한전 간의 공식 대화창구로서 합의점 도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위 측에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 • 2009년 출범하여 2010년 6월 25일 15차 갈등조정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활동 • 마지막 회의에서 양측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구두합의 • 2010년 11월 16일 작성한 합의서에서는 한전이 명문화를 거부한 전자계 합의사항이 제외되어 작성
기록물 내용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프레젠테이션자료, 조사자료
기록물 유형	회의자료, 도면, 보고서

<표 7> 이해관계자 조사서: 나눔문화

명칭	나눔문화
시기	2012년 1월 26일 - 현재
구분	비영리 사회조직
구성원	나눔문화의 회원 중에서도 주로 대학생과 초등학교 학생
입장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핵발전 반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탑 반대 투쟁과정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밀양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에 참여 • 게시판 내의 세부카테고리 상에서는 밀양 관련 게시글들이 '핵발전 반대'로 분류되어 있음 • 양질의 사진자료가 많음
기록물 내용	밀양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회원들의 후기와 주민과의 대화 등을 기사처럼 편집, 게시
기록물 유형	인터넷 게시글과 그에 포함된 사진자료

3.3 기록 조사

이러한 맥락 분석을 토대로 2014년 7월부터 인터넷 자료 조사를 시작하였고, 8월 11일~18일에는 밀양을 방문하여 대책위 및 주요 소장자에 대한 조사 및 기록 수집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갈등사건은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생산된 기록의 출처가 다양하고 규모도 상당하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대책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중심으로 Omeka를 이용한 디지털 컬렉션 및 전시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실험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출처의 기록을 포함하는 아카이브로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3.1 문서

문서는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을 모두 포함한다. 세부적으로는 의견서, 탄원서, 고소·고발장과 같은 공문과 발표자료, 홍보 유인물과 같은 홍보자료, 활동일지, 밀양으로 온 편지 등이 있다. 공문의 경우 갈등초기에는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의 비중이 높았다가, 한전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강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의 비중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홍보자료의 경우에도 갈등초기에는 밀양 주민들 간에 정보전달과 의식고양을 위한 홍보자료였다가, 갈등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대국민 대상의 홍보로 변하고 있다. 활동일지는 2012년 10월 부산·울산·경남 환경단체에서 간사가 파견되어 행정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매일 작성하고 있으나 그 전에 생산된 일지는 찾아보기 어

려웠고, 편지의 경우 밀양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2012년 이후에 학교나 민간단체 등에서 밀양의 어르신들에게 지지의 의미로 보내 온 편지가 대부분이다. 단체로 작성하여 보내 온 편지이기 때문에 날짜나 발신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3.3.2 단행본 및 보고서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가 2007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갈등중반에 이르러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갈등중반에는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와 같이 한전의 공사강행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서가, 후반에 이르러서는 『‘밀양사태와 전자파문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등 송전탑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다. 보고서는 특히 대책위가 보상이나 관련법률 개정 등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였던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많이 생산되었다.

단행본은 밀양 사건을 주민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았으며 2014년 발간된 『밀양을 살다』가 대표적이다. 주민 구술 중심의 『밀양을 살다』 외에 장영식 작가의 사진집 『밀양아리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송전선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투쟁을 흑백의 사진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구술이나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구성된 단행본은 전시 내러티브를 설계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

3.3.3 박물

대책위원회는 각종 퍼포먼스와 행사 때 사용하거나 생산한 소품, 걸개그림, 피켓, 포스터, 그

리고 일상적인 홍보를 위해 제작한 티셔츠와 모자, 배지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남아있는 박물관들은 주로 연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2년 이후에 생산된 것들이다.

3.3.4 사진

사진은 작가사진과 주민활동 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 작가사진은 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들이 촬영하거나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해 사용했던 사진이다. 주민 사진은 각 농성장의 주민들이 당시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서울 등에서 퍼포먼스를 하거나 콘서트를 할 때 개인적으로 촬영하여 남긴 스냅샷 등을 포함한다. 주민사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나, 초점이 흐리거나 중복된 사진이 많아 선별이 필요하고, 작가사진의 경우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아카이브에 올릴 수 있다.

3.3.5 영상기록

영상기록은 다시 작가영상과 주민영상으로 나눌 수 있다. 작가영상의 경우 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촬영하였거나 홍보·상영용 자료로 편집한 것으로 비교적 담담한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주민영상의 경우 농성장이나 각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툼 등을 주민이 촬영한 것으로 영상 품질이 낮은 편이고 격한 대립의 양상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특징을 갖는다.

3.3.6 언론자료

대책위에서는 밀양 갈등과 관련하여 발행된 언론자료 역시 스크랩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밀

양 갈등과 관련한 언론자료 중 경남도민일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남도민일보 외에는 한겨레, 동아일보 등이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경남도민들이 주주이면서 경남 일간지 가운데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간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밀양 송전탑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대책위의 스크랩 과정에서 취사선별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나, 경남도민일보의 경우 “150회 밀양 송전탑 촛불문화제”, “대한민국 민낯 ... 한순간에 짓밟힌 10년간의 절규” 등 대부분이 기사에 주민들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7 인터넷자료

대책위에서 운영하는 네 개의 웹 사이트,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대책위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 없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카페인 ‘76만5천v송전철탄건설반대밀양시민모임(<http://cafe.daum.net/765miryancg>)’은 2008년 7월 19일에 만들어진 카페로, 발표문과 성명서가 카페 게시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카페의 게시글은 다소 격양되어 있고 신랄한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카페인 ‘765kv 송전탑 건설, 이대로는 안된다(65kv 송전탑 건설, 이대로는 안된다 <http://cafe.naver.com/kinyug>)’는 2009년 7월 19일에 만들어진 카페로, 이 시기 대책위가 한전과의 공식적인 대화창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려했던 만큼 갈등조정위원회, 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자료가 상당량 게시되어 있다. 2010년 10월에 만들어진 다음카페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http://cafe.dau>

m.net/dure-madang)’은 현재 대책위가 사무실을 두고 있는 두레기금 너른마당의 인터넷 카페로, 본 사건과 관련한 게시판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은 여기에 게시되고 있으며, 단순 정보전달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방식으로 맥락 조사와 기록조사를 마친 후 아카이브 설계 및 데이터 구축을 실시하였다.

4. 디지털아카이브의 설계와 데이터 구축

4.1 개발도구: Omeka v2.0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많이 활용되는 오픈소스는 AtoM과 Omeka이다. 본 연구에서는 Omeka를 이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Omeka는 AtoM 등 기존의 아카이브 소프트웨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용자 친화적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카이브의 핵심 컬렉션을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쉽게 만들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meka는 플러그인을 활

용하여 추가 기능을 확장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한 플러그인은 Omeka 버전에 따라 제한적이다. 버전에 따라 사용가능한 플러그인은 <표 8>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v2.0을 사용하였다. csv importer 기능으로 엑셀로 작성한 기록물 기본 목록을 업로드하고, exhibit builder로 전시 페이지를 구성하였으며, collection tree로 기존의 Omeka가 갖는 무계층성을 극복하고, simple page 기능으로 보다 세련된 페이지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4.2 아카이브의 구성

이 아카이브는 컬렉션 구축과 전시를 핵심 기능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 기능과 구성을 <표 9>와 같이 설계하였다. 모든 기록 컬렉션과 아이템, 전시를 브라우징할 수 있고 기록건에 대한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료 유형과 출처를 조합하여 컬렉션을 구성함으로써 Omeka가 가진 계층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시 주제는 갈등의 쟁점과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잡았다. 컬렉션의 유형과 전시 주제는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전시콘텐츠 화면 사례는 <그림 4>와 같다.

<표 8> Omeka 버전별 지원 플러그인

v1.3	v1.5	v2.0
	simple page exhibit builder	
comment contribution geolocation		scripto collection tree
	my omeka	csv importer

〈표 9〉 밀양 갈등 아카이브의 내용 구성

Browse Items	Browse Collections	Browse Exhibits	Ab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wse all • Browse by tag • Search Items 	<p>[사진과 영상] 사진_밀양 사람들 사진_행정대집행 사진_촛불집회 사진_전문작가사진 사진_희망버스 사진_축제 영상_밀양 사람들 영상_행정대집행 영상_촛불집회 영상_다큐멘터리 영상_희망버스 영상_축제...</p> <p>[문서] 대책위-문서 대책위-사진 갈등조정위원회 회의록 주민_육필_탄원서 한전-국회제출자료 한전-고발장 밀양경찰서 밀양시</p> <p>[보고서와 단행본] [박물] [언론자료] 일간지_중앙 일간지_경남도민 일간지_밀양신문 주간지 언론_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밀양, 무엇이 문제였을까: 갈등의 쟁점 2.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공익의 이름으로 3. 일방적인 결정과정과 공사 시작 4.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의혹 5. 주민들의 분노: 최초의 주민반대집회, 공동대책위 출범(2006) 6. 지역도 함께: 밀양시, 밀양시의회 건설 반대(2007) 7. 한전의 공사 시작: 전원개발 사업 승인 및 고시(2007)와 공사 착공(2008.8) 8. 주민운동의 본격화(2008.8-2009.9): 건설 백지화 집회, 전국 송변전로 건설반대 대책위 출범, 범밀양시민연대 발대식 및 총궐기대회 9. 갈등조정위원회가 남긴 것(2009.12-2010.6) 10. 정부, 한전, 그리고 밀양시((2010): 한전, 밀양시장과 창녕군수 고소, 토지강제수용 착수, 밀양시의 입장 변화, 11. 대화: 밀양주민-한전 간 대화위원회 운영(2011.5-7) 12. 보상: 보상협의회(2011.8-11)와 적정보상제도 연구용역 13. 태고종 약산사 주지스님 폭행 상해사건(2011.11) 14. 이치우 할아버지의 죽음(2012.1) 15. 희망버스(2012-2013):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의 전국화와 희망버스 16. 촛불집회(2012.2~2014.6) 17. 공사강행과 밀양주민 유한숙씨 자살(2013.12) 18. 행정대집행과정과 폭력, 그리고 인권(2013-2014) 19. 한전의 주민 설득과 공동체 붕괴(2012-2014) 20.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무엇이 문제였나(2013.5~7), 21. 송전선로 건설반대 운동의 전환과 및 탈핵운동(2012.1~) 22. 밀양, 그 평화롭고 소담한 삶 23. 밀양을 살다: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 (『밀양을 살다』의 내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개요 • 구축목적 • Contract



〈그림 4〉 Omeka를 이용한 전시 구축 사례

4.3 메타데이터

4.3.1 기록 정리 및 사건코드 부여

밀양에 소재한 대책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경우 전체 이관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실험구축을 위해 1차 방문시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록물의 잔존 양상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고, 2차로 방문하여 엑셀 기본목록을 작성하였다. 사건에 따라 기록을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위 사건별로 사건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코드는 사건 시작연도와 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하였다(〈표 10〉 참조). 밀양 갈등사건을 구성하는 하위의 사건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새로운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속 추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2 목록과 기술

대책위 사무실에서 작성한 엑셀 기본목록의 요소는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기술하였다. 공통적으로 기술한 요소로는 위치정보, 관리번호, 생산일자, 철/건명, 사건명, 주요내용, 유형, 생산자, 주기, 보안이 있다. 가능한 모든 유형

의 기술요소를 통일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술은 전시를 고려하여 건별 기술을 기본으로 하였다.

전자기록은 철(폴더) 단위와 건(파일) 단위별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전자기록건의 유형은 문서나 이미지, 영상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종이기록은 대책위 사무실에서 형성한 원질서를 존중하여 소장자료, 발신자료, 수신자료로 나누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각 대분류 내에서 ‘유형(type)’요소를 사용하여 종이기록의 상세유형을 기술하였다. 박물은 대책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박물을 대상으로 목록화하였으며, 박물의 생산맥락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대책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기술을 실시하였다.

Omeka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수집한 기록의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더블링크어 요소와 매핑해야 하므로, 작성한 기본목록의 요소와 더블링크어 요소를 〈표 11〉과 같이 매핑하였다. 특히 subject에는 사건명을 기술하여 기록이 사건별로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파일이 정비되면 사건코드도 함께 입력할 계획이다.

〈표 10〉 사건별 코드 부여(예)

사건번호	핵심사건
A2003-01	송전선로 경과지의 결정(2003)
A2000-01	사업의 배경과 전력수급계획(2000~2003)
A2005-01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2005.5~6)
A2005-02	최초의 주민반대 집회와 주민들의 분노 표출(2005~2006)
~~~~~	
A2013-06	전문가협의체 구성과 보고서(2013.5~7)
A2013-07	송전선로 건설반대 운동의 전환과 및 탈핵운동(2012.1~)
A2014-01	송주법 제정과 헌법소원(2014)
A2014-02	송전탑 52기 설치 완료(2014.11)

〈표 11〉 기록물 기본목록과 더블링크어 요소 매핑테이블

기본목록/ 더블링크어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박물
	철 목록	건 목록	대책위 소장자료	대책위 발신자료	대책위 수신자료	박물자료
source	위치정보	위치정보	위치정보	위치정보	위치정보	위치정보
identifier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date	생산일자	생산일자	생산일자	생산일자	생산일자	생산일자
title	철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subject	사건명 (사건코드)	사건명 (사건코드)	사건명 (사건코드)	사건명 (사건코드)	사건명 (사건코드)	사건명 (사건코드)
description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type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creator/publisher/contribution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발신자	발신자	생산자
format		확장자				
	크기	크기(장)	쪽수	쪽수	쪽수	
relation						
	주기	주기	주기	주기	주기	주기
rights	보안	보안	보안	보안	보안	보안
language						
coverage						

〈표 11〉과 같은 매핑테이블을 토대로 Omeka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림 5〉와 같은 모습이 된다. 시스템에서는 15가지 DC 요소를 모두 지원하지만,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요소는 자동적으로 제외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갈등사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아이템 기술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록의 생산배경이다. 어떤 배경에서 생산되었는지 모르면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가령 〈표 12〉는 현수막에 대한 기술사례인데, 기록에는 생산일시와 배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Description, Subject 요소를 이용하여 맥락을 충분히 기술하였다. 동영상, 문서(회의록), 문서(고소장), 사진 등의 기술 사례는 〈표 13〉, 〈표 14〉, 〈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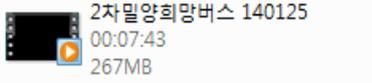
〈표 16〉과 같다. 이밖에 포스터, 걸개그림, 박물 등 매우 다양한 매체와 유형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컬렉션에 배치하여 관련 있는 전시에 활용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현수막, 포스터, 걸개그림도 많았는데, 먼저 현장 사진들을 조사하여 행사명과 배경을 확인하였고, 여의치 않은 경우 활동가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5〉는 아이템 업로드 사례이다.

앞으로 아이템 기술을 보강하고, 전시 항목을 확충한 후에 Omeka의 타임라인, 참여 기능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며, 밀양 사건의 당사자인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의견제시, 기록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아카이브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표 12〉 아이템 기술 사례: 현수막 [박물]

Title	김정희는 죄가 없다! 즉각 석방하라! [현수막]
Files	
Subject	김정희 감금 폭행 사건[A2013-09]
Description	2012년 9월 7일, 한국전력공사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들이 '송전탑 반대 동화전마을 대책위' 위원장이었던 김정희의 두 손을 뒤로 결박하여 노끈으로 묶어 20여 분간 감금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밀양경찰서에서 김정희를 연행해 수사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김정희를 풀어달라며 항의했을 때 사용한 현수막이다.
Creator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
Publisher	PNU SSK
Date	2012.09.07
Contributor	765kV 밀양대책위원회
Tags	2012.09.07., 김정희, 김정희 감금 폭행 사건

〈표 13〉 아이템 기술 사례: 동영상

Title	2차밀양희망버스 141025 [동영상]
Files	
Subject	2차 밀양 희망버스[A2014-03]
Description	2014년 1월 25일 제 2차 밀양 희망버스 때 상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2013년 11월 1차 희망버스와 12월 유한숙 어르신에 대한 사건, 추운겨울 움막에서 버티온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 등을 담고 있다. 크기는 267MB, 파일의 크기는 7분 43초, 최종수정일자는 2014년 1월 25일이다.
Creator	765kV 밀양대책위
Publisher	PNU SSK
Date	2014.01.25.
Contributor	밀양미디어팀
Format	mp4
Tags	희망버스, 시민참여, 2014.01.25

〈표 14〉 아이템 기술 사례: 회의록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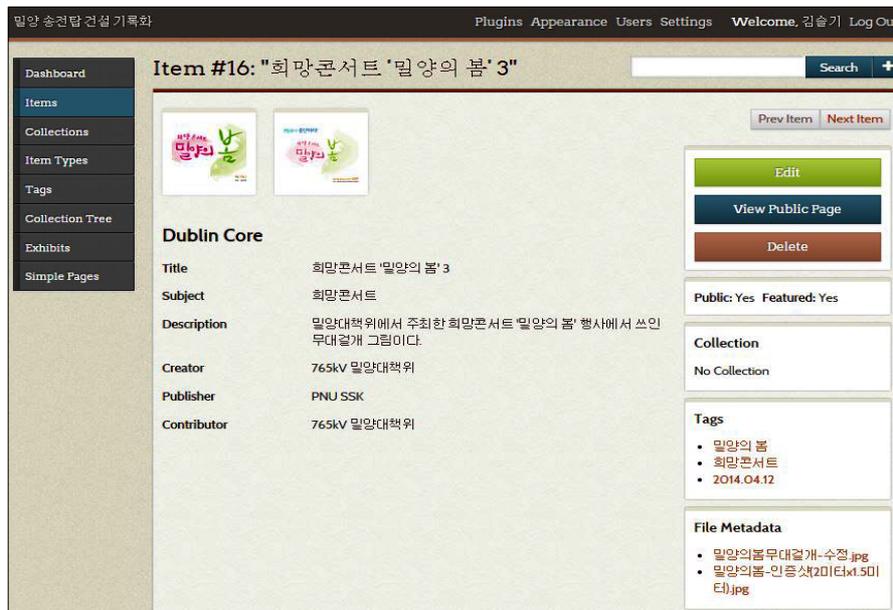
Title	20140115 밀양희망버스 회의록
Files	 20140115 밀양희망버스 회의록 한컴오피스 한글 2010 문서 21.0KB
Subject	2차 밀양 희망버스[A2014-03]
Description	2차 밀양 희망버스 추진을 위한 5차 상황실 회의 회의록. 본 회의록에서는 46개 지역에서 2차 밀양희망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었고, 25일 오후 2시에 밀양에서 집결하여 26일 12시에 밀양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각 지역에서 희망버스를 위해 밀양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밀양시 11개 마을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25일 저녁식사와 26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웹자보나 포스터, 광고 등의 홍보현황과 행사를 위한 비품준비 현황, 행사 스케줄 조정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Creator	765kV 밀양대책위
Publisher	PNU SSK
Date	2014.01.15.
Contributor	765kV 밀양 대책위원회
Format	hwp
Tags	희망버스, 회의록, 14.01.25

〈표 15〉 아이템 기술 사례: 고소장 [문서]

Title	2013 1125 강귀영씨 등 경찰 고소장
Files	 2013 1125 강귀영씨 등 경찰 고소장 한컴오피스 한글 2010 문서
Subject	경찰의 주민 폭행사건(2013)[A2013-05]
Description	2013년 11월 19일 사연리에서 있었던 경찰과 주민간의 충돌에 있어, 주민이 해당 경찰을 고소하는 고소장이다. 고소인인 마을주민 유씨와 권씨, 강씨가 박 경정과 그의 부하경찰 두 명을 공동주거침입, 직권남용죄, 공동재물손괴, 범인은닉죄로 고발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을 대신하여 주로 대책위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 고소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공사 용역업체, 경찰에 의한 주민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고소장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Creator	765kV 밀양대책위
Publisher	PNU SSK
Date	2013.11.25.
Contributor	765kV 밀양 대책위원회
Format	hwp
Tags	고소장

〈표 16〉 아이템 기술 사례: 작가사진

Title	밀양의 봄, '그래도 나는 산을 오른다' [사진]
Files	
Subject	희망콘서트[A2014-06]
Description	2014년 4월 12일 밀양역 광장에서 개최된 밀양의 봄 콘서트 사진이다. 위 사진은 밀양의 봄 행사 순서 중 밀양 주민들의 '희망의 노래'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문구가 적힌 친을 시종일관 보여줌으로써 송전탑 공사 반대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산을 오른다'는 문구와 함께 '뜨거운 희망 가슴에 품고/ 손 잡아주는 그들이 있기에/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이어져 하나의 시를 이룬다.
Creator	빈진향 765kV 밀양대책위
Publisher	PNU SSK
Date	2014.04.12.
Contributor	765kV 밀양 대책위원회
Format	jpg
Tags	밀양의 봄, 희망콘서트, 2014.04.12.



〈그림 5〉 아이템 업로드 사례

## 5. 맺음말

공공사업은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설득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공익의 이름으로 삶의 터전과 환경을 양보하는 지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밀양 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경피해를 부담해야 했지만 설득이나 보상이 미흡했고, 이에 대한 항의는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환경갈등을 기록으로 남기되, 기록화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기록을 우선적으로 획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갈등 주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구미 기록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록학 실천주의(Archivism)는 기록전문가들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윤리적 근거를 말해준다(이현정, 2014, pp. 216-223).

또한 갈등기록화를 위한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아카이브 구축을 시도하였다. 기록화 전략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먼저 갈등사건은 물론 연관되는 단체, 법령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대표적인 기록 생산자를 포착, 접촉하여 다양한 기록을 확보하였으며, 기록을 수집·정

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재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아카이브 컬렉션의 구조와 전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대책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목록데이터와 디지털화한 기록을 중심으로 Omeka를 이용한 디지털 컬렉션과 전시를 구현하였다.

데이터 구축이 완성된 후 주민, 활동가, 기록 전문가로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밀양 환경갈등사건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컬렉션'으로 모으고, '전시'를 통해 갈등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기록을 통해 보여주는 데에 Omeka가 매우 편리한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meka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신만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한글화 작업이 되지 않아서 영어로 구축을 진행해야 하고, 요소명 등이 영어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은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록전문가 그룹이 한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조만간 한국형 Omeka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밀양아카이브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구축 실험을 통해 이러한 작업은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 (2014). 오픈소스를 이용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27-151.
- 설문원 (2014).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

- 구, 42, 285-324.
- 오명진 (2012). 공공영역의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기록. 기록학연구, 32, 45-78.
- 이종덕, 신규용, 유진철 (2013). 컴퓨터활용교육: 교육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리포지토리 설계 및 구축 방안.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집, 16, 95-102.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2.
- 최윤진, 최동운, 김형희, 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 135-184.
-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 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42, 245-285.
- Juliet L. Hardesty (2014). Exhibiting library collections online: Omeka in context. *New Library World*, 115(3/4), 75-86.
- Middleton, Ken & York, Amy (2014). Collaborative publishing in digital history. *International digital library perspectives*, 30(3), 192-202.
- Marsh, Allison C. (2013). Omeka in the classroom: The challenges of teaching material culture in a digital world. *Literary & Linguistic Computing*, 28(2), 279-282.
- Nykolaizyn, Juliana (2011). Bracero History Archive. *Reference Reviews*, 25(4), 54-54.
- Kucsma, Jason, Reiss, Kevin, & Sidman, Angela (2010). Using Omeka to Build Digital Collections: The METRO Case Study. *D-Lib Magazine*, 16(3-4).  
<http://www.dlib.org/dlib/march10/kucsma/03kucsma.html>

####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2014a). 검색일자: 2014. 10. 2.  
<http://theme.archives.go.kr/next/history/kimcy/viewMain.do>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2014b). 검색일자: 2014. 10. 2.  
<http://theme.archives.go.kr/next/choba/viewMain.do>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2014c). 검색일자: 2014. 10. 2.  
<http://theme.archives.go.kr/next/history/samilos/mainView.do>
- 나눔문화연구원. 검색일자: 2014. 8. 15. <http://www.nanum.com/site/home>
-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검색일자: 2014. 8. 2. <http://cafe.daum.net/dure-madang>
-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 검색일자: 2014. 10. 3. <http://omeka.hmarchives.com/>
- 765kv 송전탑 건설, 이대로는 안된다. 검색일자: 2014. 8. 2. <http://cafe.naver.com/kinyug>
- 76만5천v송전철탄건설반대밀양시민모임. 검색일자: 2014. 8. 2. <http://cafe.daum.net/765miryancg>
- Cleveland Historical. Retrieved 2014. 9. 3. from <http://clevelandhistorical.org/>

Florida Memory. Retrieved 2014. 9. 3. from <http://www.floridamemory.com/about/>  
I Am A Man. Retrieved 2014. 8. 20. from <http://dlxs.lib.wayne.edu/iamaman/>  
Occupy Wall Street. Retrieved 2014. 9. 2. from <http://occupywallstreet.net/>  
Ohio Civil War 150. Retrieved 2014. 9. 3. from <http://www.ohiocivilwar150.org/>  
911 Digital Archives. Retrieved 2014. 9. 3. from <https://archive.org/details/91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Lee, Jongdeog, Shin, Kyuyong, & Yoo, Jincheol (2013).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pository for archiving educational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6, 95-102.
- Song, Jung-Sook, Heo, Jeong Sook, & Lee, Yea Lin (2014). Digital image archiving methodology on the port of Busan: A case study using an open-source archiving softw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3), 127-151.
- Hyun, Moonsoo, Jeon, Bobae, & Lee, Dong-Hyun (2014). Implementing a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for shipbuilding labor digital archives in Young-do, Bu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245-285.
- Choi, Yun-Jin, Choi, Dong-Woon, Kim, Hyung-Hee, & Yim, Jin-Hee (2014). A study on the exhibition through the web with open source software OMEK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135-184.
- Lee, Hyun-Jeong (2014).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archival activism: Focusing on the documentation case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213-242.
- Seol, Moon Won (2014). A design of narrative structure for documenting environmental conflicts: Case of Mi-ryang transmission towers construction conflict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285-324.
- Oh, Myung-Jin (2012). A study on the records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in the public domai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45-78.